

넙

 악동양반: 느악
늦었다
아주 많이!

 Kaming (GM): 다이쵸부다 몬다이나이

 악동양반: 손나 장비로 다이쵸부인가

 호인.: 철컹
아니 이탈리아냐

 호인: 이거지

 Kaming (GM): ㅋㅋ
요오시

 호인: 그라아안도 시즈으으은

 Kaming (GM): 소녀호위 하지마루요오~

 호인: 호잇호이잇~

 Kaming (GM): 뭐 원하시는 장면이라던가 있으신가요?

 호인: 흠...
영맥아가씨랑 이야기 하고싶기도 합니다
둘다 오래살았으니까요
서자랑 영맥에 대해 이야기하는것도 좋겠쵸

 Kaming (GM): 흐무흐무

 호인: 흐무로리가 또

 Kaming (GM): 그럼 시작해볼까요

=====
시간을 되돌아와서 사쿠야가 아직 잠에 빠져있을 며칠사이의 일
그동안 호인은 어디서 무엇을 하고있었을까요?

 호인: 빌딩의 숲 사이를 이리저리 뒹뒹기고 있었을겁니다
최근 영맥근처에 모노노케들이 자주 꼬여서 민간인들의 피해가 많았으니
사쿠야를 노리고 달려드는 모노노케지만
당시의 호인은 그걸 잘 몰랐습니다
이번에도 대충 모노노케 한마리를 처리하고 그 시체를 바닥에 팽개쳐놓겠네요
"대체 어디서...뭐때문에 이리도 날뛰는거지"

 호인: 어두운 골목길 영맥 근처에서 호인은
그렇게 독백합니다

 Kaming (GM): 대부분의 모노노케들이 시로와 여러분들에게 처치되었기 때문에
이 주변에는 이제 적대하는 모노노케는 이제 거의 없는것같네요.

 호인: 그러면 언제나처럼 빌딩사이를 뛰어넘으면서 도시를 감시하겠네욧



Kaming (GM): 그런 호인의 시야에
익숙한 인물이 들어오는군요.



서자: "....."



호인: @서자를 발견하고는 그 옆에 떨어져 착지합니다
"무얼 하고있느냐"
@반가운듯한 미소를 지으며 호인은 서자에게 다가갑니다



서자: @살짝 움찔
"아 호인이구나"
@반가운듯 미소를 되돌려주죠
"그냥 계속 가만히 있으니 심심해서 인간세계좀 구경할겸 산책도중이었어"



호인: "그렇구나"
"..."
@호인은 주변의 정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우리가 태어났을적 시대와는 많이 다른곳이구나"



Kaming (GM): 높은건물도 많고
호인이 알던 시대와는 꽤 다른 현대적인 모습



서자: "시대는 바뀌는 법이니까"
"호인도 일에 열중하는것도 좋지만 잠시 주변을 돌아보는것도 좋을꺼야"
"적어도 휴대폰은 사용할줄은 알아야지"
"자 여기 새로 받아온 폰이야"



호인: "으음...그것은 너무 어렵..."



서자: @네모난 검은 무언가를 건네줍니다(?)
호인이 보기에는 그렇겠죠



호인: @그렇게 말하다가 서자가 건네준 네모난 검은 무언가(...)를 받습니다



서자: "살살 누르는거야 살살"



호인: "살살..."
@살살...
누르자 화면이 튀어나오는걸보고
약간 움찔합니다



서자: "연락하는것까지는 기대하지 않으니까 적어도 받는것만이라도 연습해놓자구"
"자아 일단 내가 전화를 걸어볼게"
@똑같은걸 꺼내더니 무언가 꺾꺾 누르더니
호인의 검은 무언가에서 소리와함께 빛이나네요



호인: "어어..."
@당황하다가



서자: "그곳에 초록색 마크를 누르면되"
@사용법을 설명합니다.

호인: @서자가 말해준대로 통화버튼을 누르고

들여다봅니다(...)

 서자: ".....들여다봐서는 의미없다구"
"귀에 가져다가 대는거야"

 호인: @귀에다 가져다댁니다
"이렇게 말이나"
@양손으로 조심스레

 서자: "그렇지 그러면 거기서"

 호인: 뭔가 깨지면 안될거 다루듯이...

 서자: @자신의 휴대폰에 말을 한다
"그곳에서 내 목소리가 전해지는거야"

 호인: @귀에서 들리는 서자의 목소리에
오오 하면서 동공이 커집니다

 서자: "반대로도 가능해 호인이 나에게 말을 할 수 도 있지"

 호인: "그럴수가"

 서자: "현대문물은 굉장한거야"
@웃음

 호인: "설마 어디서든지 이렇게 가능한것이냐"
@반짝반짝
"정말이지 어린 생명들의 발전은 항상 나를 놀라게하는구나"

 서자: "에...웬만한곳에선?"

 호인: "이건 뭐라고해야할까..."

 서자: "지하라던가 외진곳에서는 안될때도 있다던데"

 호인: "그런것이냐?"

 서자: "또 모노노케들의 마경이라던가 영력결계 내부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네"
@음음

 호인: @흐음...,하며 다시 검은물건을 뺏히 보다가
"평소에 아라쉬나 두 아가들이 사용하는걸 봤다"
"편해보이더구나"

 서자: "익숙해지면? 나도 아직 다 아는건 아니야"
"저기 저 사람들은 걸어다니면서도 쓰는걸"
@지나다니는 일반인들을 가리킨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걸어다니며 휴대폰을 바라보고있네요

 호인: "저저..."
"그래도 걸을때만큼은 앞을 봐야하지 않겠느냐"

 서자: "나도 그렇게 생각해"

"너무 익숙해지는것도 문제인가?"



호인: "으음...편하긴 하지만..."

@뽀히 내려다보다가



서자: "그 편함에 중독되버리면 곤란하겠지"

@웃음



호인: "...음..."

"예전에 백호 어르신이 내게 가르쳐주신것이 생각나는구나"

"평화란것은 달콤한 독과도 같다"

"익숙해지면 전신을 파고들어 감각을 무디게하지"

@다시 도시의 전경을 바라봅니다



서자: "...하지만 그래도 평화가 좋지않을까? 싸움도..분쟁도 없고 누군가가 희생당하는 일도 희생해야하는 일도 없으니"



호인: "물론이다"

"그것을 위해 우리가 있지 않으나"

"하지만...그 평화에 안주해서도 안되는것이야..."

"언제나 대비는 필요한법"



서자: "호인은 들킨하네"

"나도 호인처럼 강해지고..싶을까나? 알까나"@뒷머리 긁적



호인: "?"

"서자는 지금도 충분히 강하지 않으나"

@가우똥 거리며 묻습니다



서자: "글썩..나 호인처럼 강인하지도... 또 용감하지도 않은걸"

"내가 할 수 있는건 단지 싸움에 방해되지않게 멀리서 도와주는것 뿐"

@말하는 서자의 표정은 살짝 어두워보입니다.



호인: @호인은 조용히 듣다가

다시 입을열니다

"...다른 십이지들이 어떻게 시대가 지나도 감각을 잃지 않고 생명들의 곁에 있을수 있는줄 아느냐?"



서자: "...?"



호인: "그건 서자 니가 발빠르게 움직여 우리들에게 시대의 흐름을 가르쳐주기 때문이란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다"

"이 세상 생명 그 누구도 완전한 생명은 없지"

"우리 십이지들은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기 위해 창조된것이다"



서자: ".....그런가.. 그런거겠지..?"



호인: "그래 서자야 누구에게나 강함은 존재한다"

"그건 적을 부수는 힘도될수 있고"

@휴대전화를 바라봅니다

"누군가의 부족한점을 가르쳐주고 조언을 해주는 판단력이 될수도 있다"

"강함이란것의 기준은 언제든 바뀐다"

"힘만을 기준으로 내세운다면"

-  호인: "우리는 사악한 악귀(아라미타마)들과 다를바가 없는 것이야"
-  서자: "...그런가"
@살짝 무언가 생각하는 표정
"그래도 이왕이면 호인처럼 멋지게 나서서 남들을 지켜줄 수 있는 그런힘이였으면 좋았을텐데"@살짝 입을 삐죽
-  호인: "..."
-  서자: "그래도..."
"그런 호인도 못하는게 있으니까"
@휴대폰을 흔들흔들
하며 웃죠
-  호인: @서자의 웃음에 마주 웃어보이면서
"그렇단다 서자야"
"나도 그 아이들과 함께있으면서 스스로의 부족한점을 배운단다"
"가련한 생명이기에 지켜줘야겠다고 생각한 아이들은 내 생각보다..."
"아니 누구보다 강했다"
"나는 더이상 그아이들을"
-  호인: "아니 그들을 가련한 생명으로 보지 않을것이야"
"나조차도 이렇게 느낄때도 있다"
-  서자: "...호인도 달라졌구나"
@살짝 놀란표정
"여기서 다른 동료들과 같이 다니면서 조금 바뀐거같아"
-  호인: "나도 그 시대의 흐름이라는것을 탄것일수도 있겠구나"
@웃습니다
-  서자: "나도.. 그러면 조금 달라질 수 있을까?"
-  호인: "물론이다"
"백호 어른신의 가르침 부끄럽지만 잊어버리고 말았는데 서자와 이야기하면서 다시 생각났구나"
"타인을 지키되 그들이 약하기 때문이라 생각하지 말라"
-  서자: "...나도 다른..동료 만들어볼까"
@살짝 머뭇거리며
"나 항상 십이지의 그늘에만 있었던것같은 기분이 들어"
-  호인: "...그렇구나"
-  서자: "나도 호인처럼"
"다른 동료들을 만들면 ...강해질 수 있을까?"
-  호인: "그 동료들과 함께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걸어나갈지 생각해보거라"
"좋은 동료들 만나는것도 중요하지만"
"서자가 진심으로 변화를 꾀하겠다면..."
"동료들을 혼자서 끄는것도 쫓아가는것도 아닌"
"그들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함께 걸어나가거라"



서자: "....."



호인: "누군가 앞서가면 제지하고"



서자: @곰곰



호인: "누군가 뒤쳐지면 끌어주고"

"나는 다른 아이들..."

"쿠사카베, 세실리아. 아라쉬"

"그들에게서 그것을 배웠다"

"그들뿐만이 아니다"

"아키와 아야네"



호인: "그리고 서자 너"

"모두가 나에게 많은것을 가르쳐준단다"



서자: "후후 호인은 동료들 이야기만 나오면 칭찬들 뿐이네 좋은 동료들을 뒀구나"



호인: "그만큼 좋은 동료들이니 말이다"



서자: "그렇게 말해주니 조금 쑥스러운걸.."

@부끄



호인: "후후"



서자: "그래 언제까지 나만 이렇게 멈춰있을 수는 없지"

"나도 언젠가 강해져서 호인의 옆에 나란히 서서 같이 싸울게"



호인: "자신의 강함을 꼭 찾거라 분명 서자라면 할 수 있을것이다."



서자: "응 고마워"



호인: "나도 언젠가 서자와 함께 걸어갈때를 염원하고 있으며":



서자: "하하 나중에 동료들좀 소개시켜줘"



호인: "그렇게 하마"

@미소짓습니다



서자: "나는 우선 퇴마협회에 말해볼까 해"



호인: "그렇구나 흐음..."

"서자야"



서자: "?"



호인: "너에게 주려고 했지만 조금 늦었구나"

"주작 어르신이 너에게 주려고 했었는데"

"좀 늦었다"

@호인은 얇은 채찍하나를 꺼냅니다



서자: "채찍?"



호인: "절편이라고 하는 물건이다"

"서자의 꼬리를 보고 만든 물건이란다"

서자: "헤에....엇?"



@엉덩이를 가린다

"...ㄷ..듣고보니 비슷..한거같기도 하고"



호인: "서자는 몸이 날렵하고 섬세한 움직임이 가능하지 않냐"

"몸에 묶여 가리기도 쉽고 실처럼 가느다랗게 만들수도 있단다"

"우리중에서 그런 섬세한 움직임을 사용할수있는건 서자뿐이니"

"언젠가 서자가 자신의 한계를 느꼈을때"

"그것으로 고민하고있을때"

"그 고민을 넘어선 자신의 해답을 찾았을때"



호인: "이것을 전해달라고 부탁하시더구나"

"이것은 무기로 사용할수도 있다 서자야"



서자: "...">@받아드립니다.



호인: "하지만 서자라면..."



서자: "주작어르신께서..."



호인: "그것을 무기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수 있을것이야"



서자: "어쩐지 계속 내 엉덩이쪽에 시선이 가있으셔서 살짝 무서워했었는데..그런 이유가"



호인: "하하하!"

"각 십이지의 특징을 본따 무기를 만드시는 분이니"



서자: @살짝 부끄러워합니다.

@오해였어



호인: "다른 십이지를 면밀히 관찰하는것이다"



서자: "그렇구나...나는 또 오해를 하하"

@하하하..



호인: "나에겐 무기같은게 주어지지 않아서 조금 섭섭하기도 하다만..."



서자: 서자의 안에서 주작어르신의 이미지란..



호인: (과연...)

"근데 아까부터 표정이 조금 어둡구나"

"무슨일 있느냐?"



서자: 항상 이상한 눈빛으로 다른 십이지들을 관찰(?)하고 있는 모습이어서

"으응? 아니야"



호인: (주작어르신은 참고로 여자입니다)



서자: (헨타이데수우)



호인: (데수웅)

"어째 서자는 주작어르신의 신의를 좀 많이 받는거같구나"

@짱긱게 웃습니다



서자: ".....기뻐..해야하는걸까?"

@땀을 빼질



호인: "기쁜일이 아니더냐?"



서자: "아..아하하하"



호인: @호인은 약간 이해하지 못한듯합니다



서자: @시선에서 느낀게 그뿐만은 아닌듯
@꺼림찍



호인: "하하 아무튼 주작어르신의 선물이다"
"서자가 그렇게 생각할줄은 몰랐구나"



서자: "그래 나중에 감사인사를 드리러 가야지"
"혼자가는..것도 좀 그러니까 나중에 같이 가줄래?"
@혼자가서 무슨짓을 당할지 모르니까 같이가줄래?



호인: "오 그래 다른 어르신들께도 인사를 드려야겠지"
@어르신들 얼굴좀 보고오자



서자: 그렇게..
걸으며 이야기하다보니
어느세 주택가 B쪽의 다리를 지나고있네요.



호인: @종이상자(...)가 있는지 두리번 거리면서 걸어갑니다



서자: "영맥이 깨끗해서 그런지 여기 물은 다른 도시의 비해 깨끗해보여"
"이것도 다 영맥의 주인이 힘낸거겠지"
잠시 다리의 멈춰서 물의 흐름을
관찰



호인: @그렇게 말하면 서자와함께 주변을 둘러봅니다
"확실히 이 주변엔 나무도 많고"
"초록색이 대부분이구나"



서자: "응..초록색이 대부분....응?"
"저 초록색은..뭘지?"



호인: "??"



서자: 뭔가가...둥둥 물의 흐름을 타고
떠내려가고있네요
초록색의 무언가..



호인: "..."
"흠..."
"건져볼까 한다면"



서자: "에..?"



호인: @호인은 강가로 뛰어들어 초록색 뭔가에게 달려들듯이
다이빙합니다



캣파: "Zzzzz....후와악!?"

호인: (역시 이럴줄 알았어!!)

 @풍덩

하고 다시 물을 빠져나온 호인은
 컷파를 들어올르립니다
 "오랜만이구나"



컷파: @데롱데롱

"누..누구나! 그리고 여기는 어디냐 컷파?"

@두리번

"...는 그때 친절한 짐승이다 컷파"



호인: "잠이 들어 이 근방까지 오게된듯 하구나"

@강가로 올라와

물을 한번 털어내곤



서자: @타월을 꺼내며

"정말..갑자기 물에 뛰어들지 말라고"

@호인의 머리를 털어준다



호인: @어푸어푸



컷파: "비슷한 느낌의 짐승이 또 있다 컷파"

@서자를 바라본다



호인: "내 친구이니라"



서자: "뭐야..모노노케?"



호인: "아 전에 집이 무너져서 도와준적이 있다":



컷파: "나는 컷파다 컷파!"



서자: "해로울..꺼갈진 않네"



컷파: "해롭다니! 무례한 짐승이다 컷파!"

@씩씩



호인: "이 아이의 그릇에 탁기는 없으니 걱정말거라"

@좋은애야



서자: "그 미안하다"

@굽적



컷파: "흥 알면 된거시다 컷파"



호인: "어떠한 연유로 이곳에 흘러들어온것이냐?"



컷파: "헛! 나는 분명 기분좋은 낮잠을 자고있었다. 컷파"

"그런데 깨보니 이곳에 있었던 거시다 컷파"

@깟다기보단 깨어졌지만



호인: @그말을 듣고 강물의 흐름을 따라 시선을 옮깁니다



서자: "...용케 아무일 없이 여기까지 흘러내려왔네"



호인: 한곳에서부터 흘러내려온것인가요?



Kaming (GM): 네

저수지에서

물이 흘러내려오고 있지요



호인: "집까지 갈수 있겠느냐"

"뭐 그냥 자고있었다면 물가에서 계속 자도 된다만"



키타파: "우우..햇빛도 강해졌고 돌아가는게 좋을꺼 같다 키타파"

@모노노케는 햇빛에 약하다



호인: @그말에 하늘을 올려다봅니다



Kaming (GM): 아마 이대로 뒹으면

햇빛때문에 다쳐을지도..

맑다! 라고 할만큼

구름한점 없네요



호인: "조심히 돌아가거라



서자: "확실히 모노노케한테 햇빛은 독이니까"



호인: @조용히 고개를 끄덕입니다



키타파: "고맙다 키타파 역시 친절한 짐승인거시다 키타파"

@그렇게 다시 물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나옵니다.



호인: "?"



키타파: "그런데 요새 우리집 주변을 돌아다니는 녀석들 그쪽의 동료들인가 키타파?"



호인: "주변을 돌아다닌다니"

"행색을 말해줄수 있겠느냐"



키타파: "자세히 본적은 없지만 무언가 이질적인 기척이 자주 산속을 돌아다닌다 키타파"

"그런 느낌 느껴본적이 있는거같기도하고..없는거같기도하고...키타파.."



호인: "...그리고보니 그 특대인가 하는곳과 퇴마협회라는곳에서 특별히 움직임이 있었더냐"

@서자를 바라보며 묻습니다

키타파집을 고치고 나서 일행이랑 키타파집을 가본적이 없으니..



서자: "으음..."

@곰인곰인

"그리고보니"

"최근에 특대쪽에서 처음보는사람이 퇴마협회에 방문한적은 있었네"

"우연히 그때 호인의 휴대폰을 다시 받아오느냐고 지나가듯 들었는데.."

"뭐였지.. 이제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다.. 뭐 그런 이야기랑... 머신? 사이..뭐시기?"



서자: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오가곤 했는데"



호인: "머신?"



서자: "미안 자세히는 모르겠어"

@귀가 추ㅏㄱ

추욱



호인: "괜찮다"
"기척만이라고 했느냐"



캣파: "캣파파 그렇다 캣파"



호인: "그렇구나...그럼 혹시 모르니 같이 가주마"



캣파: "무언가 찾는듯했다 캣파"



호인: "찾는듯하다..."



캣파: "점점 우리집쪽으로 가까워지는 듯한 기분도 든다 캣파"



호인: "혹시 모르니 같이 가주마"
"먼저 가거라 따라갈테니"
"그리 됐는데"
"서자는 어쩔것이나"



캣파: "캣파 생각보다 강하다 캣파!"@무시하지 말라는듯 물장구



호인: @호인은 작게 웃고
"그래 알겠다"



서자: "글썩 저 캣파 재밌기도하고 따라가볼까"



캣파: "으으...힘을 썼더니 햇빛이 더 아프다 캣파아.."



호인: "그럼 집들이라도 시켜주겠느냐"
@햇빛을 가려주며 말합니다



캣파: "오..한결 편해졌다 캣파"



서자: "...대낮에 물위에 떠다니는 모노노케.."@품
서자가 뒤돌아 웃고있습니다.



캣파: "...뭔가 나를 비웃는듯한 느낌이 든다 캣파"
@지긋..



호인: "음...너무 그러지 말거라"



서자: "미안미안 처음보는 유형이라"



호인: "그래서...이렇게 계속 등등 떠다닐테냐?"
"해도 이미 중천에있다만"



캣파: "물 깊숙히 들어가면 문제없다 캣파!"
@하고 잠수...
@이후 다시 상승
"...알은거시다. 캣파"
@침울



호인: "가려줄테니 집들이라도 시켜주려므나"
@몸으로 캣파를 가려줍니다

캣파: "...어쩔수 없는거시다. 이번만인 거시다 캣파!"



"특별히 집에 초대해주는 거시다 캣파"

@츨츨



서자: "뭐 그러면 가볼까 얼마나 대단한 집이길레"



호인: @하하 하고 웃습니다



Kaming (GM): 그렇게 캣파는 둥둥 이동하기 시작하고 호인과 서자는 따라갑니다.

-저수지-



캣파: "후 드디어 도착했다 캣파"

어찌어찌 도착했군요



호인: "고생했다"



캣파: "이곳이 내 집이다 캣파!"



Kaming (GM): 마치 비버의 집을 연상시키는 모양



서자: ".....음 대단하네"

@무표정



캣파: "나의 노력의 결정인거시다! 캣파파!"

@도야



호인: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Kaming (GM): 뭐 여기까지 오는동안 특별한건 없었네요



호인: "그렇구나 훌륭한 집이다"

@웃어주면서 아이달래듯이 말해줍니다



캣파: "캣파파"

@자랑스러운 얼굴



서자: "그건그렇고 특별한건 없네"

@귀를 쫓긋

주변을 바라봅니다.



호인: "그러게 말이다"

@쫓긋쫓긋

"뭔가 찾아냈느냐?"



서자: "으음...글쎄 조용한것 빼고는? 뭐 아무일도 없으니 조용한게 당연한거지만"



캣파: "캣파파 나도 아무것도 안느껴진다. 캣파"

@집중하는 표정



호인: "너도 고생이 많구나"



캣파: "캣파아?"

@가웃

호인: "어째 너의 집 주변에는 뭔가 하나들은 이상한게 꼬이더구나"



"집이 자주 무너지는 모양이지?"



캣파: "...어떻게 아는거시냐 캣파!"

@놀란표정



서자: "자주 무너지는거냐.."



호인: 비버집같은 모양새라고 하셨죠?



서자: @측은\

네



호인: @나무하나를 아니 두개를

통째로 뜯어냅니다



Kaming (GM): @우르르

....

하나가 빠지자

연쇄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호인: (어 잠깐만ㅋㅋㅋㅋ)



캣파: "ㅋ...카앗파.."

@기절



호인: "....???"



서자: "어이..뭐하는야"

"그건 그렇고 너무 허술하잖아!"



호인: "저 조약한 것(캣파집)을 보강하려고 말이다"

"그런데 이리 약할줄은..."



서자: "안무너지고있던게 신기할정도라고!"

@어이없



호인: "설마 노력의 결실이라는것이"



캣파: "나..나의 노력의 결실이..캣파"



호인: "무너질때마다 계속 쌓아서 그런것인가"

@나무를 집근처에다 두고



Kaming (GM): ㄱㄹㄷ



호인: 이 무너진 집을 살펴봅니다

단순히 나뭇가지나 돌맹이로

노가다 한건가요?

흙도 안쓰고?



Kaming (GM): 네

큰거라면 뭐든 좋다고생각한건지

떠다니던

씩은 나무들도
가져다가 쓴모 ㅏ ㅓ

 호인: "...적어도 흙은 쓰거라"

 캣파: "캣파아.."
@시무룩

 서자: @팔을 걷어부치며

 호인: "건축쪽에 조예가 있는건 아무래도 돈해(십이지)인데"

 서자: "이거..대공사가 되겠는걸"
"여기에는 없잖아"
"우리끼리 보수해보야지"

 호인: "그렇구나 둘이서 힘을 내야겠구나"
@작게 웃으며 서자와 함께 팔을 걷습니다

 캣파: "나도 있다 캣파!"

 호인: "...저것"
@자신이 뽑아든 나무를 가리킵니다
"저것과 비슷한 색깔"
"그리고 무거운것을 아래에서부터"
"나뭇가지 사이를 진흙으로 잇거라"

 캣파: "맡겨두는거시다! 캣파"

 서자: "나는 주변에 쓸만한거 모아올게"
(ㅇ타가 잘 안쳐져)

 호인: "부탁하겠다"

 서자: (ㅂㄷㅂㄷ)

 호인: (가장 중요한것이!!)

 서자: 무튼
한참 그렇게 대공사를 마치고나니
조금 불만하게 되었네요
완벽하진않지만

 캣파: "ㅇ..이것이 나의 집..!"
@캣파아..!
저번보다 100배는 견고해되는
보이는 집 완성

 호인: "그래도 꽤 오래걸렸구나"

 서자: "그러게 해도 넘어가고"

 호인: "하하 돈해는 이걸 대체 어떻게 그렇게 손쉽게 한것인지"

 서자: @흙을 털며

-  호인: @마찬가지로 흠을 털고
-  캣파: "감사한거시다! 캣파"
-  호인: (하지만 이후 모노노케한테 또 부서졌다고 한다)
-  캣파: @너희들 착한 프렌즈구나?
-  호인: "괜찮다"
"하지만 또 부숩지면..."
@굽적
"돈해를 여기로 데려와야겠구나"
-  캣파: "이렇게 견고해보이는데 부서질리 없는거시다!"
-  호인: "적어도 일부러 부수려고 달려들지 않으면"
-  서자: "아하하.."
-  호인: "근처에 나무 뽑는다고 무너지진 않을것이다"
-  서자: "그건 너무 심해써.."
@절레절레
"그럼 시간도 늦었고 그만 돌아갈까?"
@호인을 보며
-  호인: "그러자구나"
@마지막으로 주변에서 뭔가 느껴지는지
관찰하고
끝내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으면
서자와함께 내려갑니다
-  서자: -----
-  **Kaming (GM):** 오늘은 오지않았는지 끝내 여러분의 기척에 걸려들지 않았습니까. 단순한 기우인걸까요?
그렇게 호인은 서자와 같이 거처에 돌아갔습니다.
-  호인: @오늘도 종이상자 여러개를 펼쳐놓고
딩굴딩굴
항상 거처에오면 먼저 하는것입니다
-  서자: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거"
-  호인: 마치 고양이처럼
"우우웅..."
-  서자: @그러면서 치즈를 갇아먹고있다
-  호인: "이 상자라는 물건은 생명들이 만들어낸 아주 위대한것임이 틀림없다"
@부비부비
-  서자: "....."
-  호인: 다른 애들이 이걸보면 뭐라고 할지...
서자: 무튼 그런 평화로운 일상이 끝나고...

다음날



Kaming (GM): 주변의 더이상 해로운 모노노케도 발견되지않고

할일이 없어진

호인은

평상시대로 따뜻한 햇볕이 드는곳에 자리잡고 일광욕을 즐기고있습니다.

그런 호인에게 서자가 밝은 표정으로 다가오죠



서자: "호인 여기있었구나"

@싱글빙글



호인: "앗!"

@일어납니다

상자를 펼쳐놔서

하마터면 즐빰했습니다

"아 서자로구나"



서자: "...내가 더 놀랐어"

@가슴을 쓸어내리며

"오늘은 한가한가보네"



호인: "그렇다 하지만...좋은 일이지 않느냐..."

"아까 마을을 계속 돌아다녀봤지만 어떠한 징후도 발견되지 않아서말이다"

"그렇기에 이려고 있는것이다"

@상자부비부빳



서자: "아하하 그건그렇고 호인 나도 드디어 동료가 생겼어"

@방방뛰며 기뻐합니다.



호인: "오오!"



서자: "퇴마협회에 말해봤더니"

"오히려 자신들이 고맙다며 자리를 마련해준거 있지?"



호인: "축하한다 서자야 이로써 서자도 신사냥꾼으로써 한발짝 내딛겠구나"



서자: "헤헤.."

@부끄부끄



호인: @호인은 정말 기쁜듯이 웃으며 말합니다



서자: "그런데.."



호인: "?"



서자: "여기에는 이미 호인네 팀이 있어서"

"나는 조금 여기서 떨어지게 될꺼같아"



호인: "...그건 좀 아쉽게됐지만..."

"서자도 십이지로써...아니 서자로써 성장하기 위해 나선다니 나로써는 막지 않겠다"



서자: "응 고마워 나 강해져서 다시 호인의 곁으로 돌아올게"

"다시 돌아왔을때는..."
"나란히 서서..같이 싸우자"

 호인: "그래..."
"하하 주작어르신이 기뻐하겠구나"

 서자: "아하하.."
"그러니 조금 떨어지게 되었지만"
"걱정마!"
"이것저것 경험해보고 강해져서 돌아올테니"
@웃음

 호인: "그래 서자야"
"분명 서자는 해낼 수 것이다"
"새로운 동료들을 믿고 나아가거라"
@손을 내밉니다

 서자: "응!"
@손을 맞잡습니다.

 Kaming (GM): 그렇게 서자는 강해지기위한 여행(?)을 떠납니다.

 호인: 강해져서 돌아와라

 Kaming (GM): =====
이정도로 끝내지요

 악동양반: 후아

 Kaming (GM): ^^

 악동양반: 고생하셨습니다!

 Kaming (GM): 네 고생하셔어요

 악동양반: 서자...노려지고있어...

 Kaming (GM): 주작주작..

 악동양반: 날아오르라 주작이여...
너무 저만 아는거를 툭툭 뱉어대서
불편하진 않으셨는지

 Kaming (GM): 다이쇼부다 몬다이나이
뭐 앞으로 일어날 이것저것에 떡밥을 조금씩 뿌려놨으니
회수할날이 기대되는군요

 악동양반: 그러쿤여
서자는 과연...!!

 Kaming (GM): ^^
어떨까요?
(웃음)

악동양반: 불안불안..